

《古今韻會舉要》 陽聲韻 연구*

신 용 권**

— <目次> —

I. 서론	III. 《舉要》 陽聲韻의 성격
II. 《舉要》 陽聲韻 체계의 재구	1. 음운적 특징과 음운변화
1. 陽聲韻 재구와 관련된 문제	2. 현대방언과의 계승 관계
2. 陽聲韻 체계의 재구와 분석	IV. 결론

I. 서론

《古今韻會舉要》(1297년, 이하 《舉要》)는 전통적인 切韻系 韻書의 형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字母의 구성이나 字母韻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이 책의 실질적인 음운 체계를 보여주는 韻書이다. 또한 南宋 말기에서 元代 초기에 존재한 공통어의 실제 음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中國語音韻史 연구의 중요 자료로 간주되어 왔다.

《舉要》는 이처럼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 오는 과도기에 특정 지역에서 통용된 공통어의 중국어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음운 자료라고 할 수 있어서 중국어음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舉要》는 字母韻이라는 독특한 방식을 통하여 실질적인 韻母 체계를 나타내고 있어서 중국어 韻母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21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韻母 체계의 한 부분인 陽聲韻의 변화 문제를 살펴볼 목적으로 《學要》의 陽聲韻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하여 《學要》 陽聲韻 체계의 재구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근거로 한 재구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재구 분석을 토대로 하여 《學要》 陽聲韻 체계의 음운적 특징 및 성격을 음운변화와 방언 배경의 측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본고는 중국어 韻母의 변화 과정을 반영하는 핵심적인 자료로 간주되어 온 《學要》를 대상으로 陽聲韻의 음운적 특징과 음운변화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중국어 陽聲韻의 통시적 변화 양상을 보다 온전하게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學要》 陽聲韻 체계의 재구

1. 陽聲韻 재구와 관련된 문제

본 절에서는 《學要》의 陽聲韻 체계를 재구하기에 앞서 재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고 재구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學要》 陽聲韻 체계의 재구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學要》 陽聲韻 재구의 근거 자료

- ① 《學要》 陽聲韻 字母韻의 체계와 관계
- ② 《廣韻》, 《中原音韻》, 현대표준중국어의 음운 상황과 변화 양상
- ③ 《學要》 入聲韻 字母韻과의 상호 대응 관계

1) 중국어음운학에서는 韻尾에 따라 부류를 나누고 있다. 陰聲韻은 韻尾가 없거나 모음 韻尾(-i, -u 등)를 가진 韻이고, 陽聲韻은 鼻音 韻尾(-m, -n, -ŋ 등)를 가진 韻이며, 入聲韻은 폐쇄음 韻尾(-p, -t, -k, -ʔ 등)를 가진 韻이다.

- ④ 《蒙古字韻》의 파스와 글자 표기와 《四聲通解》의 蒙韻音 표기
- ⑤ 《四聲通解》의 韻會音 표기

위의 자료는 이전의 연구에서 《學要》의 음운 체계를 분석하고 재구하는 데 주로 활용했던 것인데, 《學要》 陽聲韻의 재구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전의 연구에서 이미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재구의 근거 자료와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만을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한다.²⁾

먼저 《學要》의 陽聲韻 字母韻은 《學要》 陽聲韻의 실제 음운 체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재구의 기준이자 가장 핵심적인 근거 자료라고 할 수 있다. 《學要》에는 平聲(69韻), 上聲(61韻), 去聲(59韻), 入聲(29韻) 네 聲調를 합쳐 218개의 字母韻이 제시되었는데, 이 字母韻 체계가 《學要》의 실질적인 韻母 체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기존의 주요 연구에서는 대부분 《學要》의 字母韻 체계를 분석하여 韻母 체계를 귀납하였다.³⁾ 본고에서도 40류(平聲 40韻, 上聲 33韻, 去聲 31韻, 총 104韻)로 제시된 《學要》의 陽聲韻 字母韻을 재구의 기본 단위이면서 주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

《學要》를 中古에서 近代로 이행하는 과도 시기의 공통어를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통어를 반영하는 《廣韻》, 《中原音韻》 및 현대표준중국어의 음운 상황과 변화 양상을 비교 대상이자 재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學要》를 《廣韻》, 《中原音韻》, 현대표준중국어 등과 비교하는 데 음운변화의 측

2) 신용권, 「고금운회거요」 음성운 연구, 《언어학》 제89호, 2021, 148-151쪽 참고.
 3) 《學要》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字母韻 체계를 근거로 《學要》의 韻母 체계를 귀납하였는데, 이러한 주요 연구 성과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董同龢, 《漢語音韻學》, 文史哲出版社, 1968. Cheng Tsai-Fa, *Ancient Chinese and Early Mandari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o.2. (1985). 竺家寧, 《古今韻會學要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 1986. 寧忌浮, 《古今韻會學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1997. 花登正宏, 《古今韻會學要研究—中國近世音韻史の一側面—》, 汲古書院, 1997.

면에서 살펴볼 것인가 아니면 방언 배경의 측면에서 살펴볼 것인가의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學要》와 《中原音韻》 사이의 음운적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廣韻》과 《學要》 그리고 《學要》와 현대표준중국어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음운변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에 충분하지만 《學要》(1297)와 《中原音韻》(1324)은 그 시간적인 간격이 27년에 불과해서 음운변화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해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學要》의 음운 체계는 南宋 말기와 元代 초기에 南宋의 수도인 臨安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통용된 南方通語의 면모를 구현했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中原音韻》은 南方의 공통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學要》가 《中原音韻》과 언어적인 배경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⁴⁾ 이 때문에 《學要》와 《中原音韻》의 차이가 두 韻書가 각각 반영하는 언어의 방언 배경이나 文白音의 차이에서 기인했다고 보는 견해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그러나 《學要》, 《中原音韻》 및 《廣韻》 세 韻書는 반영하는 언어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中原 지역 언어의 음운에 기반을 둔 당시의 공통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北方과 南方의 공통어는 각각의 지역적 특성이 투영되어 있을 수 있으나 당시 北方과 南方의 지식인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언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음운 체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⁵⁾ 따라서 이러한 현실과 한계를 감안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는 이 세 韻書를 통시적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며, 현대표준중국어도 공통어의 변화가 현재까지 진

4) 《學要》의 음계 기초에 대해서는 慎鏞權, <《古今韻會學要》研究>,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88-90쪽 참고. 《中原音韻》의 음계 기초에 대해서는 元代 大都話를 반영한다는 견해, 中原 지역에서 폭넓게 통용되던 공통어를 반영한다는 견해, 洛陽을 중심으로 하는 河南話를 반영한다는 견해, 膠遼方言을 반영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된 바 있는데, 대체적으로 南方의 언어를 반영한다고 보는 견해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5) 《廣韻》의 저본이라고 할 수 있는 《切韻》의 음계 기초에 대한 논의는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廣東教育出版社, 1995, 132-137쪽 참고.

행된 상태로 볼 수 있어서 비교 대상으로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재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入聲 韻尾(-p, -t, -k)의 합류와 관련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切韻系 韻書에서 보이는 陽聲韻과 入聲韻의 相配 관계는 《學要》에서 이미 보이지 않기 때문에 陽聲韻 체계를 재구하는 데 入聲韻과의 상호 대응 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陽聲韻과 入聲韻의 相配 관계 대신 《學要》에서는 陰聲韻 29류와 入聲韻 29韻의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學要》와 《蒙古字韻》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蒙古字韻》의 파스와 글자 표기도 참고할 수 있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四聲通解》(1517)에 나타난 蒙韻音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참고한다.⁶⁾ 《四聲通解》에 제시된 韻會音 표기는 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구의 경우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이 韻會音 표기가 《學要》를 반영한 것인지 또는 《學要》의 저본인 黃公紹의 《古今韻會》를 반영한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두 책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學要》의 음운 체계를 귀납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만한 자료로 판단한다.⁷⁾

끝으로 재구음을 도출하는 데 본고에서 설정한 몇 가지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學要》 陽聲韻의 字母韻 체계와 字母韻 사이의 관계는 재구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자료인데, 《學要》에서 字母韻과 韻母는 동일한 단위로 간주할 수 없다. 《學要》에서 별개의 字母韻으

- 6) 《四聲通解》에 제시된 蒙韻音은 《蒙古韻略》 및 《蒙古字韻》 등 당시의 몽골 韻書에 나타난 음이고 이들 韻書는 《學要》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學要》 陽聲韻 재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한다. 《蒙古韻略》 및 《蒙古字韻》 등을 재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려면 《學要》와 음운 체계에서 대체적인 일치와 함께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에 근거한 해명이 필요하다. 愼鏞權, <《古今韻會學要》, 《蒙古字韻》과 《東國正韻》>, 《알타이학보》 제13호, 2003, 191-195쪽 참고.
- 7) 花登正宏, 앞의 책, 1997, 70-71쪽에서는 《四聲通解》에 제시된 韻會音과 《學要》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四聲通解》 韻會音이 《古今韻會》를 반영한 것이라 하였다. 곡효운, <『四聲通解』에 인용된 문헌에 대한 연구>, 《中國言語研究》 제97집, 2021, 41-42쪽에서는 글자 ‘𪎭’를 예로 들어 花登正宏(1997)의 분석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로 구분하여 설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韻母가 다르거나 또는 결합하는 聲母의 차이에 의하여 상보적 분포(complementary distribution)의 관계를 갖는 경우이다. 이처럼 여러 字母韻이 음운적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聲母와의 결합 양상에 따라 상보적 분포의 관계를 보이는 경우에 본고에서는 관련된 字母韻들을 동일하게 재구한다. 둘째, 유사한 字母韻들 사이에 상보적 분포의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미세한 음성적 차이라고 해도 재구에 반영하여 구분한다. 셋째, 본고의 재구음은 국제음성문자(IPA)로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래의 <표 1>에 제시한 다른 연구의 재구음에서는 국제음성문자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넷째, 《學要》에서는 기본적으로 3等韻과 4等韻의 구분이 사라졌지만 字母韻 사이에 重紐 3等韻과 4等韻의 차이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다. 重紐 3等韻과 4等韻을 포함하여 3等韻과 4等韻은 ‘i’와 ‘i’로 각각 제시하며, 이는 주로 개구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重紐를 포함하여 3等韻과 4等韻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字母韻은 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中古音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 ‘i’로 제시한다. 다섯째, 《學要》에는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 오는 단계에서 나타난 음운변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반영하여 재구음을 제시한다.

2. 陽聲韻 체계의 재구와 분석

아래의 <표 1>에서는 《學要》의 字母韻을 기준으로 하여 대응하는 《廣韻》 韻目과 《中原音韻》 韻部를 제시하고, 기존의 주요 연구와 본고의 《學要》 陽聲韻 재구음을 비교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學要》 字母韻은 平聲의 字母韻을 기본으로 삼고 괄호 안에 대응하는 上聲과 去聲의 字母韻을 함께 제시한다.⁸⁾

8) <표 1>에서 《學要》 字母韻은 竺家寧(1986)에 제시된 순서를 기본으로 삼아 일부 조정을 하였으며, 《廣韻》 韻目(平聲)의 순서는 王力(1980)에 따른다. 표에서 《學要》 재구음을 인용한 논저의 약칭은 다음과 같다. Cheng →

〈표 1〉 《學要》 陽聲韻 字母韻의 재구음

學要 字母韻	廣韻 韻目	中原音韻 韻部	學要 재구음			
			Cheng	竺	花登	본고
干(筭吁)	元(非組), 寒, 刪山(幫組·莊組)	寒山	an	an	an	an
閒(簡諫)	刪山(牙喉音)	寒山	jan	ian	ian	ian
韃(塞建)	元, 先仙	先天	en	ien	ien	ien
堅(繭見)	元, 先仙	先天	jen	ien	ien	ien
賢(峴現)	先(匣母)	先天		ien	ien	ien
官(管貫)	桓	桓歡	on	on	uan	uan
關(撰慣)	刪山	寒山	wan	uan	uan	uan
涓(峴涓)	元, 先仙	先天	yen	yen	uen	uen
拳(卷辯)	元, 仙	先天	jon	yan	uen	uan
根(懇良)	眞臻, 痕	眞文	ən	ən	ən	ən
巾(謹斬)	眞, 欣, 痕(匣母)	眞文	in	ien	ien	ien
欣(緊愀) (牙喉音)	眞, 欣	眞文	jin	in	ien	ien
分(○○)	文(非組), (魂)	眞文	un	uən	uən	uən
昆(哀論)	文, 魂	眞文	un	uən	uən	uən
鈞(綸攢)	眞諄, 文	眞文	jun	yən	uen	uen
雲(○○)	文(影·云母)	眞文	win	yn	uen	uen
筠(隕運)(影·云母)	眞, 文	眞文	yin	yn	uen	uen
公(孔貢)	東·冬鍾(非組·知照系), 庚耕清, 登	東鍾	uŋ	uŋ	uŋ	uŋ
弓(拱供)	東, 鍾, 庚清	東鍾	juŋ	iuŋ	iuŋ	iuŋ
岡(吭綱)	江, 陽(非組·知照系), 唐	江陽	aŋ	aŋ	aŋ	aŋ
江(講絳)	江, 陽	江陽	jaŋ	iaŋ	iaŋ	iaŋ
光(廣誑)	江, 陽唐	江陽	waŋ	uaŋ	uaŋ	uaŋ
黃(晃○)	唐(匣母)	江陽	oŋ	uaŋ	uaŋ	uaŋ

Cheng Tsai-Fa(1985), 竺 → 竺家寧(1986), 花登 → 花登正宏(1997).

舉要 字母韻	廣韻 韻目	中原音韻 韻部	舉要 재구음			
			Cheng	竺	花登	본고
莊(頰壯)	陽(莊組)	江陽	iaŋ	oŋ	ɔŋ	ɔŋ
摳(肯亘)	庚耕(幫組·知照系), 登	庚青	əŋ	əŋ	əŋ	əŋ
京(景敬)	庚耕清, 青, 蒸	庚青	iŋ	iŋ	iəŋ	iəŋ
經(劉勁)	庚耕清, 青, 蒸	庚青	jiŋ	iəŋ	iəŋ	iəŋ
行(杏行)(匣母)	庚耕(清), 青	庚青	jeŋ	iŋ	iəŋ	iəŋ
泓(○○)	耕(影母)	東鍾	wəŋ	yəŋ	uəŋ	uəŋ
雄(頃○)	東, 清, 青	庚青	yeŋ	yəŋ	iuəŋ	iuəŋ
兄(○○)	庚(曉母)	東鍾, 庚青	yiŋ	yəŋ	iuəŋ	iuəŋ
金(錦禁)	侵	侵尋	im	iəm	iəm	iəm
歆(○○)	侵(曉母)	侵尋	jim	iəm	iəm	iəm
簪(○譜)	侵(莊組)	侵尋	əm	əm	əm	əm
甘(感紺)	覃談, 咸銜, 凡(唇音)	監咸	am	am	am	am
緘(減鑑)	咸銜(牙喉音)	監咸	jam	iam	iam	iam
箝(檢劔)	鹽添, 嚴(凡)	廉纖	em	iem	iem	iem
兼(歉歉) (牙喉音)	鹽添, (嚴)	廉纖	jem	im	iem	iem
嫌(○○)	添(匣母)	廉纖		im	iem	iem
欵(險○) (曉母)	鹽, 嚴	廉纖	jem	im	iem	iem

〈표 1〉에서 제시한 재구음과 함께 각 字母韻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면 《舉要》 陽聲韻은 다음과 같이 일곱 부류로 나눌 수 있다.

(2) 《舉要》 陽聲韻의 일곱 부류

- ① 干[an]/關[uan]/官[uɑn]/開[iɑn]/韃堅賢[ien]/夸[juan]/涓[iuen]
- ② 根[ən]/分昆[uən]/巾[iən]/欣[iən]/鈞雲筠[juən]
- ③ 公[uŋ]/弓[iuŋ]
- ④ 岡[aŋ]/莊[ɔŋ]/光黃[uaŋ]/江[iaŋ]
- ⑤ 摳[əŋ]/泓[uəŋ]/京經行[iəŋ]/雄兄[iuəŋ]

⑥ 簪[am]/金歆[iam]

⑦ 甘[am]/緘[iam]/箝欵[rem]/兼嫌[iem]

〈표 1〉에서 제시한 본고의 《學要》 재구음이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陽聲韻 字母韻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⁹⁾

■ 干(筭吁)/閒(簡諫) 字母韻

干韻은 中古 1等韻인 寒韻 글자를 위주로 하여 中古 2等韻인 刪山韻 글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學要》에서는 기본적으로 1等과 2等 글자의 구별이 없다. 干韻의 일부는 中古 元韻의 輕唇音 글자인데, 《學要》에서 輕唇音 글자는 洪音화가 되어 陰聲韻의 羈(己寄) 字母韻 등 소수를 제외하고 ‘i’와 결합하지 않는다. 《學要》에서는 中古 開口 2等的 牙喉音 聲母 부류가 다른 聲母 부류와 별개의 字母韻으로 나뉘어 속하는 현상이 폭넓게 나타난다. 이는 牙喉音 글자들에서 전설성의 개음 ‘i’가 발생한 상태를 반영하는 것인데 閒韻은 이러한 예에 속한다.

■ 韃(寔建)/堅(繭見)/賢(峴現) 字母韻

韃, 堅, 賢 세韻은 모두 細音의 字母韻이다.¹⁰⁾ 이 세韻의 글자들은 中古 3等과 4等的 開口 글자였지만, 《學要》에서는 각각 다른 字母韻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 세韻은 결합하는 聲母에 차이가 있다. 唇音, 齒音 등에서 韃韻 글자는 대부분 中古 有聲 聲母였고, 堅韻 글자는 牙音, 唇音, 齒音, 舌上音, 喉音 등에서 대부분 中古 無聲 聲母였으며, 舌頭音 글자는 韃韻에만 있고 堅韻에는 없다. 賢韻은 韃韻과 堅韻에 없는 匣母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學要》에서는 이 세韻을 별도의 字母韻으로 나누어 결합하는 聲母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대체적인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韻母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이 세韻은 《廣韻》, 《中原音韻》 및 현대표준중국어에서 韻母의 讀音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이 세韻의 소속 글자들은 《廣韻》과 《中原音韻》에서

9) 각 字母韻에 제시한 설명에서 平聲 字母韻의 명칭은 대응하는 上聲과 去聲의 字母韻까지 아우른 것이다.

10) 細音은 발음 시 구강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공간이 비교적 작은 음으로 대체적으로 3等韻과 4等韻을 가리키고, 洪音은 공명이 일어나는 공간이 비교적 큰 음으로 대체적으로 1等韻과 2等韻을 가리킨다.

閉韻과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데, 이는 주모음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세韻을 동일하게 ‘ien’으로 재구한다.

■ 官(管貫)/關(撰慣) 字母韻

官, 關 두韻은 합口的 洪音 字母韻이다. 官韻과 關韻은 《廣韻》에서 桓韻과 刪山韻에 각각 속해 있고, 《中原音韻》에서는 桓歡韻과 寒山韻에 각각 속해 있다. 두 字母韻은 상보적 분포의 관계가 아니고, 모두 합口呼의 상태로 개음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四聲通解》의 正音에서는 韻母 표기가 官韻은 ‘ㄴ’, 關韻은 ‘ㄴ’으로 구분되며, 官韻은 韻會音이 없으나 蒙韻音의 韻母 주모음 표기가 ‘ㄴ’이고 關韻은 韻會音의 韻母 주모음 표기가 ‘ㄴ’로 되어 있다. 따라서 두韻은 미세하지만 주모음의 차이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中古音을 고려하여 官韻은 ‘uan’, 關韻은 ‘uan’으로 재구한다.

■ 涓(峽涓)/券(卷變) 字母韻

涓, 券 두韻은 합口的 細音 字母韻이다. 涓韻과 券韻은 《廣韻》(元, 仙韻)과 《中原音韻》(先天韻)에서 소속된 韻이 대부분 같으며, 현대표준중국어에서의 讀音(‘uan’ 또는 ‘yen’)도 같다. 이 두韻에는 모두 牙音 글자가 있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中古 重紐 현상을 보이는 字母韻에 속하지만 3等과 4等の 여부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¹¹⁾ 다만 涓韻의 牙喉音 글자는 券韻과 달리 주모음의 개구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中古 先韻에 속한 경우가 있다. 또한 《四聲通解》의 韻會音에서도 涓韻은 주모음 표기가 ‘ㄴ’에 전설성을 더한 ‘ㄴ’, 券韻은 ‘ㄴ’로 되어 있다. 본고는 《學要》에서 아직 撮口呼가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涓韻과 券韻은 각각 ‘iuen’과 ‘iuan’으로 재구한다.

■ 根(懇艮)/巾(謹斬)/欣(緊愼) 字母韻

根韻은 開口의 洪音 字母韻이고, 巾韻과 欣韻은 이에 대응하는 開口의 細音 字母韻이다. 巾, 欣 두韻은 《廣韻》(眞·欣·痕韻)과 《中原音韻》(眞文韻)에서 소속된 韻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현대표준중국어의 讀音(‘in’(巾韻 일부 ‘ən’))도 일치한다. 欣韻은 牙喉音 聲母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巾韻과 欣韻은 모두 牙喉音 글자가 있기 때문에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學要》에서 각각 重紐 3等과 4等に 속해서 음운적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巾韻과 欣韻은 각

11) 花登正宏, 앞의 책, 1997, 144쪽 참고.

각 ‘iæn’과 ‘iæn’으로 재구한다.

■ 分(○○)/昆(袞論)/鈞(綱攔)/雲(○○)/筠(隕運) 字母韻

竺家寧(1986)에서 제시한 字母韻 체계에는 昆, 筠 두 韻은 없고 昆韻과 筠韻을 각각 分韻과 雲韻에 함께 넣어 논의하였다. 昆韻, 筠韻은 分韻, 雲韻과 사실상 음운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舉要》에서 昆韻과 筠韻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字母韻 목록에 포함한다. 分, 昆 두 韻은 ㅅ口的 洪音 字母韻이고, 鈞, 雲, 筠 세 韻은 ㅅ口的 細音 字母韻이다. 雲韻과 筠韻은 中古 影母와 云母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鈞韻에는 中古 影母와 云母 글자가 없어서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 公(孔貢)/弓(拱供) 字母韻

公韻은 中古의 東韻, 冬鍾韻과 庚耕清韻, 登韻 등에 속한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公韻 韻母 ‘-uŋ’의 형성에는 庚·耕·清·靑·蒸·登韻 소속 일부 글자가 東·冬·鍾韻 부류의 유추(analogy) 작용으로 주모음이 ‘u’로 변한 경우와 中古 細音 글자 중에서 輕唇音 글자의 洪音化와 知·照系 글자의 권설음화로 ‘i’ 개음이 사라진 두 가지 경우가 주목할 만하다.¹²⁾ 弓韻은 公韻에 대응하는 細音의 字母韻이다.

■ 岡(吭綱)/江(講絳) 字母韻

岡韻은 中古 開口의 字母韻으로 中古의 洪音과 細音 글자가 모두 속해 있다. 이 중에서 中古의 細音 글자는 輕唇音 글자의 洪音化와 知·照系 글자의 권설음화로 인해 ‘i’ 개음이 사라지는 과정을 통하여 ‘-aŋ’의 상태가 되었다. 江韻은 岡韻에 대응하는 細音의 字母韻인데, 中古 洪音이었던 글자들은 牙喉音 글자에서 전설성의 개음이 발생한 상태를 반영한다.

■ 光(廣誑)/黃(晃○)/莊(類壯) 字母韻

光, 黃 두 韻은 모두 ㅅ口的 字母韻이다. 光韻에는 匣母 글자가 없고 黃韻은 匣母 글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韻은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舉要》에서는 비교적 독특한 방식으로 匣母 글자를 보여주는데, 光韻과 黃韻을 다른 字母韻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 이러한 경우에 속한다. 賢韻과 行韻도 匣母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光, 黃 두 韻은 음운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두 韻 모두를 ‘uan’으로 재구한다. 莊韻은 中古의 陽韻 開口 正齒音 2等 글자로 구성된 字母韻이다. 莊

12) 竺家寧, 앞의 책, 1986, 71-72쪽 참고.

韻 글자들은 현대표준중국어에서는 대체적으로 ‘-uan’ 韻母의 상태이지만, 《學要》에서는 光韻과 상보적 분포의 관계에 있지 않다. 《四聲通解》에서는 光韻 소속 글자인 ‘光, 王’ 등의 正音 韻母 표기가 ‘ㄹ’이고 ‘樁, 雙, 涼’ 등의 正音 韻母 표기가 ‘ㄹ’ (蒙韻音 韻母 표기는 ‘ㄹ’)으로 되어 있는 반면 莊韻 소속의 글자 ‘莊, 創, 霜, 牀’ 등은 蒙韻音과 韻會音 없이 正音의 韻母 표기가 ‘ㄹ’으로 되어 있다.¹³⁾ 莊韻은 본래 開口 2等에서 이후 ㅁ呼로의 변화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oŋ’으로 재구한다.

■ 捩(肯亘)/京(景敬)/經(劉勁)/行(杏行) 字母韻

捩韻은 中古의 開口 洪音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京·經·行 세 韻은 모두 中古 開口 細音의 글자 위주로 구성된 字母韻인데, 세 韻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가 이 부류의 字母韻을 재구하는 데 핵심이 된다. 行韻은 匣母 및 ㅁ母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京韻, 經韻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經韻과 行韻은 전설성의 개음이 발생한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들이 속해 있어서 《學要》에서 설정한 독특한 字母韻 부류에 속한다. 京韻과 經韻에는 모두 牙音 글자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상보적 분포의 관계가 아닌데, 京韻에는 中古 庚韻 3等 글자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經韻과 그 기원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廣韻》에서 소속된 韻과 변화 과정을 고려할 때 《學要》에서 두 韻이 음운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四聲通解》의 蒙韻音과 韻會音에서는 이러한 기원의 차이를 고려하여 京韻 글자의 중성은 ‘|’로 표기하고 經韻과 行韻 글자의 중성은 ‘ㄷ’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전반적인 양상을 고려하여 京·經·行 세 韻은 음운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iəŋ’으로 동일하게 재구한다.

■ 泓(○○)/雄(頃○)/兄(○○) 字母韻

본 부류의 字母韻들은 《廣韻》 韻目과 《中原音韻》 韻部에서 소속된 상황을 고려할 때 捩, 京, 經, 行 字母韻과 상위의 부류로 함께 묶을 수 있다. 泓韻은 竺家寧(1986)에서 字母韻으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學要》에서 泓韻에는 ‘泓’ 한 글자가 나타나고 있어서 ㅁ母의 細音 字母韻인 雄韻, 兄韻과 대응하는 ㅁ母의 洪音 字母韻으로 간주한다. 兄韻은 平聲의 曉母 글자인 ‘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平聲에 曉母 글자가 없는 雄韻과 음운적인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

13) 權赫竣, <<古今韻會學要>>의 음운 체계 연구—《四聲通解》의 韻會音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91-96쪽 참고.

■ 金(錦禁)/歆(○○)/簪(○譜) 字母韻

簪韻은 中古의 侵韻 正齒音 2等 글자로 구성된 洪音의 字母韻이다. 簪韻(平聲)에 대응하는 上聲의 字母韻이 없고, 金韻(平聲)과 대응하는 上聲의 錦韻에 中古의 侵韻 正齒音 2等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錦韻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글자들에는 簪韻과는 달리 ‘i’ 개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韻과 歆韻은 簪韻에 대응하는 細音의 字母韻인데, 歆韻은 中古 平聲 曉母 글자인 ‘歆’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金韻과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 甘(感紺)/緘(減鑑) 字母韻

甘韻은 中古의 1等韻과 2等韻이 합쳐진 字母韻인데, 輕唇音 글자들이 洪音化와 함께 -m 韻尾에 따른 이화 작용으로 개음 ‘i’와 ‘u’가 소실되어 《舉要》에서 ‘-am’의 상태로 변화하였다.¹⁴⁾ 《舉要》에서는 -m 韻尾의 字母韻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m 韻尾는 명확히 -n 韻尾와 구분되고 있다. 緘韻은 中古 牙喉音 2等 글자에서 전설성의 개음 ‘i’가 발생한 상태를 반영한다.

■ 箝(檢劔)/兼(歎歎)/嫌(○○)/杵(險○) 字母韻

箝, 兼, 嫌, 杵 네 字母韻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箝, 杵 두韻에는 3等 글자(重紐 B류 포함)가 비교적 많고, 兼, 嫌 두韻에는 4等 글자(重紐 A류 포함)가 비교적 많다. 杵韻은 曉母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箝韻과 상보적 분포의 관계가 있고, 嫌韻은 匣母 글자인 ‘嫌’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兼韻과 상보적 분포의 관계를 보인다. 이 부류의 字母韻은 《廣韻》과 《中原音韻》에서 甘, 緘 두 字母韻과 다른 부류에 속해 있는데, 주모음의 차이로 간주하여 箝韻과 杵韻은 ‘iɛm’, 兼韻과 嫌韻은 ‘iɛm’으로 재구한다.

《舉要》 陽聲韻 字母韻은 총 40류이고 平·上·去聲의 字母韻을 합쳐 총 104韻으로 되어 있다. 위에서 논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舉要》 陽聲韻에 나타난 주요한 음운적 특징과 이와 관련된 음운변화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干·筭·盱, 公·孔·貢, 捥·肯·亘, 甘·感·紺 등의 字母韻에서 1等 글자와 2等 글자의 구별이 사라졌다.

14) 竺家寧, 앞의 책, 1986, 89쪽 참고.

2. 箝·檢·劔 등의 字母韻에서 3等 글자와 4等 글자의 구별이 사라졌다.
3. 閒·簡·諫, 江·講·絳, 經·劉·勁, 行·杏·行, 緘·減·鑑 등 字母韻의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에서 전설성의 개음이 발생하였다.
4. 干·筭·肝, 分·○·○, (昆)·袞·論, 公·孔·貢, 岡·吭·鋼, 甘·感·紺 등의 字母韻에서 輕唇音 글자의 洪音化가 나타났다.
5. 涓·畎·暄, 拳·卷·變, 鈞·梱·攢, 雲·○·○, (筠)·隕·運, 雄·頃·○, 兄·○·○ 등의 字母韻에서 撮口呼 ‘y-’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6. 箝·檢·劔, 兼·歉·歉, (嫌·○·○, 杵·險·○) 등의 字母韻에서 重紐 현상은 字母韻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牙喉音 重紐 3等과 4等 글자는 각각 다른 字母韻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7. 鼻音 韻尾 -m, -n, -ŋ의 구분이 명확히 존재하고 있다.

Ⅲ. 《學要》 陽聲韻의 성격

1. 음운적 특징과 음운변화

본 절에서는 《學要》의 陽聲韻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學要》 陽聲韻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한 음운적 특징을 음운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學要》에서는 ‘-m, -n, -ŋ’ 세 鼻音 韻尾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字母韻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學要》 각 陽聲韻 字母韻의 韻尾를 분류하여 제시한 것이다.

(3) 《學要》 陽聲韻 字母韻(平聲)의 韻尾

① ‘-m’ 韻尾의 字母韻

→ 簪, 金, 歆, 甘, 緘, 箝, 杵, 兼, 嫌

② ‘-n’ 韻尾의 字母韻

→ 干, 關, 官, 閒, 韃, 堅, 賢, 卷, 涓, 根, 分, 昆, 巾, 欣, 鈞, 雲, 筠

③ ‘-ŋ’ 韻尾의 字母韻

→ 公, 弓, 岡, 莊, 光, 黃, 江, 瓶, 泓, 京, 經, 行, 雄, 兄

《舉要》에서는 訖 字母韻과 같이 ‘-p’, ‘-t’, ‘-k’ 각 入聲 韻尾의 글자를 모두 포함한 경우가 있고, ‘-p, -t’ 또는 ‘-t, -k’와 같은 상이한 入聲 韻尾의 글자들을 하나의 字母韻에 포함한 경우도 있어서 入聲 韻尾의 구분이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하나의 字母韻에서 다른 鼻音 韻尾의 글자가 함께 포함된 경우는 없어서 세 가지 鼻音 韻尾 ‘-m, -n, -ŋ’은 《舉要》에서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m과 -n 韻尾의 합류 현상은 《中原音韻》(1324)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唇音 글자부터 점차로 진행되다가 대체적으로 15~16세기에는 북방중국어에서 종반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¹⁵⁾ 조선시대의 중국어 관련 자료는 -m과 -n 韻尾의 합류 현상을 잘 보여주는데, 《洪武正韻譯訓》(1455)에 제시된 북방중국어의 현실음인 俗音에서 -m과 -n 韻尾의 합류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洪武正韻譯訓》에 제시된 규범음인 正音과 《四聲通解》(1517)의 正音에는 ‘-m(口)’ 종성 표기가 남아 있으나, 《四聲通解》의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m(口)’과 ‘-n(ㄴ)’ 韻尾가 합류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최초의 漢學書 諺解인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이상 1515년경)에서는 문헌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좌측음에서 ‘餡(:함), 甚(:짐), 怎(:즘)’ 세 글자, 우측음에서 ‘甚(:슴), 怎(:즘)’ 두 글자에서 ‘口’ 종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실상 -m과 -n 韻尾의 전면적인 합

15)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 第31期, 1946, 39쪽 참고. 安奇燮, 〈從朝漢對音考察-m韻尾的轉化〉, 《語言研究》 第2期, 1995, 89쪽 참고. 王力, 《漢語史稿(修訂本)》, 中華書局, 1980, 135-136쪽에서는 《西儒耳目資》(1626)에서 -m 韻尾의 韻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북방어에서는 16세기 이전에 -m 韻尾가 모두 소실되었다고 하였다. 楊耐思, 《近代漢語音論(增補本)》, 商務印書館, 2012, 60-61쪽에서는 通語나 官話에서 -m 韻尾의 부분적인 변화가 14세기 이전에 발생하여 16세기 초 이전에 전면적인 변화가 나타났으며 방언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훨씬 이르다고 하였다.

류를 보여준다. 《洪武正韻譯訓》의 俗音에 나타난 -m 韻尾의 -n 韻尾化는 이 변화가 北方官話에서 15세기 중반 이전에 이미 중반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에 나타난 양상은 16세기 초에 -m과 -n 韻尾가 이미 전면적인 합류의 상태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⁶⁾

14세기 초의 《中原音韻》에서 -m과 -n 韻尾 합류의 초반 단계를 보여주고 15~16세기의 자료에서 이 변화의 중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13세기 후반에 간행된 《學要》에서 ‘-m, -n, -ŋ’ 韻尾가 명확히 구분되는 양상은 방언 배경이나 文白音 등의 측면에서 《中原音韻》과 차이를 보이는 당시 언어 상황의 일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에서 전설성의 개음이 발생한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牙喉音의 구개음화가 발생했는지 가 논란이 된다. 《學要》의 陽聲韻에서는 ‘江-岡, 講-吭, 絳-鋼, 開-干, 簡-筭, 諫-旰, 經行-(京)捩, 剗杏-肯, 勁行-(敬)亘, 緘-甘, 減-感, 鑑-紺’ 등의 字母韻 짝에서 中古 開口 2等 글자의 ‘見·溪·曉·匣’ 聲母 부류는 앞의 字母韻으로, ‘疑·影·唇·舌齒’ 聲母 부류는 뒤의 字母韻으로 나뉘어 속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寧忌浮(1997: 27-35)에서는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에서 나타난 이 현상과 함께 ‘見·溪·曉·匣’ 네 聲母의 글자에서만 3등과 4등이 대립을 유지하는 현상을 《學要》에서 경구개음 ‘tɕ, tɕʰ, ɕ’가 발생한 근거로 제시하였으며, 花登正宏(1997)에서도 범위에는 차이가 있으나 《學要》에서 구개음화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양상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 현상은 구개음화로 인하여 ‘tɕ, tɕʰ, ɕ’라는 새로운 聲母가 북방중국어의 음운체계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學要》에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관련 字母韻에 속한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에서 전설성의 개음이 聲母 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현상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후행하는 전설성의 개음이 牙喉音 聲母의

16) 愼鏞權, 〈朝鮮 漢學書의 중국어음 중성 표기에 반영된 음운변화〉, 《中國語文學》 제83집, 2020, 253-255쪽 참고.

구개음화에 필요한 조건이지만 전설성의 개음이 있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구개음화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舉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구개음화의 체계적인 발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개음화의 환경 조건이 온전히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구개음화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경구개음 ‘t̥, t̥ʰ, e’가 변이음(allophone)의 상태로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으며, 牙喉音 글자에 전설성의 개음이라는 환경이 완비된 것은 구개음화를 촉발시키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⁷⁾

北京官話에서 발생한 구개음화 현상(尖團不分)을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 문헌은 《圓音正考》(1743序)이지만, 17세기의 滿漢對譯 자료와 방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관련 기록은 17세기 이전에 북방중국어에 이미 구개음화가 발생했음을 보여준다.¹⁸⁾ 그러나 관련된 자료와 기록을 근거로 할 때 북방중국어의 역사에서 尖團不分이라 불리는 구개음화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한 시기는 최대한 이르게 잡아도 《舉要》가 간행된 13세기 후반으로 보기는 무리여서 中國語音韻史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에도 《舉要》에 나타난 관련 현상들은 구개음화의 체계적인 발생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셋째, 陽聲韻의 일부 字母韻에서 輕唇音 글자가 洪音화된 것과 관련된 문제이다. 中古 시기에는 3等韻 및 4等韻과 輕唇音이 결합할 수 있었는데, 《舉要》에서는 대부분의 字母韻에서 輕唇音이 中古의 3等韻 및 4等韻과 결합하지 못하게 되었다. 上古 시기에 구별되지 않던 重唇音과 輕唇音은 中古 시기 이후에 구별이 되는데, 그 분화의 조건은 合口 3等으로 12세기 이전에 合口 3等の 重唇音이 일률적으로 輕唇音으로 변화하였다. 《舉要》

17) 신용권, 앞의 논문, 2021, 158-160쪽 참고.

18) 明隆慶間本 《韻略易通》에는 “見溪若無精清取, 審心不見曉匣跟”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394쪽에서는 이를 근거로 이미 明隆慶年間(1567~1572)에 見系가 ‘t̥, t̥ʰ, e’로 분화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북방중국어에 당시 전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기록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정한 방언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보인다.

의 陽聲韻에서는 干·筭·盱, 分·○·○, (昆)·袞·論, 公·孔·貢, 岡·航·鋼, 甘·感·紺 등의 字母韻에서 輕唇音이 細音과 결합하지 못하고 洪音과 결합하고 있다. 다만 陰聲韻의 경우에는 羈·己·寄 등의 細音 字母韻에 輕唇音 글자가 속한 사례가 있는데, 陽聲韻에서는 이러한 字母韻을 찾아보기 어렵다.

넷째, 陰聲韻에서와 마찬가지로 陽聲韻에서도 撮口呼 ‘y-’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가의 문제이다. 일부 글자에서만 ‘i’ 개음이나 주모음이 사라져 권설음화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學要》에서 中古 遇攝 3等 글자로 구성된 居·舉·據 字母韻의 권설음화 대상 글자인 ‘諸, 除, 書’ 등은 이미 韻母가 ‘u’의 상태인 孤·古·顧 字母韻의 권설음화 대상 글자 ‘助, 初, 疏’ 등과 다른 字母韻으로 구분되고 있어서 ‘諸, 除, 書’ 등의 韻母는 여전히 ‘i’ 개음을 유지하고 있는 ‘iu’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居·舉·據 字母韻에 속한 권설음화 대상 글자들의 韻母가 이후 ‘u’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居·舉·據 字母韻 소속 글자들의 韻母는 아직 ‘y’가 아닌 ‘iu’의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學要》 陰聲韻에서 撮口呼 ‘y-’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陽聲韻에서 撮口呼 ‘y-’가 발생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學要》의 陰聲韻에 撮口呼 ‘y-’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계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陽聲韻에서도 撮口呼 ‘y-’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撮口呼의 발생을 반영하는 자료는 대부분 明代 이후에 간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學要》에는 撮口呼 ‘y-’가 존재하지 않으며 四呼 체계도 온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⁹⁾ 따라서 陽聲韻 字母韻인 涓·畎·睃, 眷·卷·變, 鈞·捆·攢, 雲·○·○, (筠)·隕·運, 雄·頃·○, 兄·○·○ 등에서 撮口呼 ‘y-’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²⁰⁾

19) 신용권, 앞의 논문, 2021, 160쪽 참고.

20) 花登正宏, 앞의 책, 1997, 385-386쪽에서는 각 字母韻의 재구음에 撮口呼 ‘y-’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반면 竺家寧, 앞의 책, 1986, 156-160쪽에서는 陽聲

다섯째, 《舉要》의 陽聲韻에서는 中古 ‘眞(諄)韻, 仙韻, 侵韻, 鹽韻(대응하는 上聲·去聲·入聲의 韻 포함)’ 등에 속한 牙音·喉音 聲母 글자에서 여러 방식으로 重紐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²¹⁾ 《舉要》 陽聲韻 字母韻에 따른 重紐 양상을 살펴보면, 中古 眞(諄)韻, 仙韻에 대응하는 字母韻에서는 重紐 현상이 소실되어 나타나지 않고, 中古 鹽韻에 대응하는 筭·檢·劔과 兼·歉·歉 字母韻(嫌·○·○과 杻·險·○ 字母韻) 등에서 重紐 현상은 牙喉音 重紐 3等과 4等 글자가 각각 두 개의 다른 字母韻에 속해 重紐의 구별이 유지되고 있다. 中古 侵韻에 대응하는 字母韻에서는 重紐 3等과 4等の 구분이 이미 소실되었지만 影母의 重紐 상황은 특수하여 3等 글자에서는 影母를 보존하고 있고 4等 글자에서는 소실되었다.²²⁾ 이처럼 《舉要》 陽聲韻에서는 中古의 重紐 현상이 많은 부분 소실되어 陰聲韻에 비하여 나타나는 사례가 적다. 다만 3等과 4等の 대립을 통해 重紐 현상을 보여주는 대립의 보존 정도가 牙喉音 開口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唇音과 牙喉音 合口에서 단계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陽聲韻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대립 보존 정도의 차이는 中古의 重紐 현상이 어떤 순서로 소실되었는가에 대한 자료적 근거를 제공해 주며, 重紐 소실의 과도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현대방언과의 계승 관계

본 절에서는 《舉要》 陽聲韻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음운적인 성격과 방언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특정 현대중국방언과의 계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이를 위하여 《舉要》 陽聲韻의 음운적인 특징

韻 중 -n과 -ŋ 韻尾의 글자들에서 ‘y’ 개음이나 주모음을 갖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1) 竺家寧, 《近代音論集》, 臺灣學生書局, 1994 참고. 花登正宏, 앞의 책, 1997, 141-148쪽 참고.

22) 竺家寧, 앞의 책, 1994, 189-191쪽 참고.

에서 특정한 방언을 반영하는 현상이 있는가의 문제를 논의한다. 본고에서는 아래에 제시한 《學要》 陽聲韻의 음운적 특징이 《學要》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현대중국방언에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각 항목의 음운적 특징에서 《學要》 陽聲韻과 특정 현대중국방언 사이에 통시적 관점의 계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① 陽聲韻 韻母의 수
- ② 陽聲韻 韻母 체계의 구성
- ③ 撮口呼와 ‘y’ 모음의 존재 여부
- ④ 1等 글자와 2等 글자의 구별 소실
- ⑤ 3等 글자와 4等 글자의 구별 소실
- ⑥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의 細音化
- ⑦ 輕唇音 글자의 洪音化
- ⑧ 陽聲韻 韻尾 ‘-m, -n, -ŋ’의 구분
- ⑨ 重紐 현상의 잔존

《學要》의 陽聲韻에 나타나는 위의 주요한 음운적 특징이 《學要》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네 가지 현대중국방언의 음운 상황과 계승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면 <표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²³⁾

23) 北京方言은 元代 이후 북방 방언의 중심이었고, 開封方言은 중원지역의 방언으로 北宋 수도의 방언이다. 杭州方言은 南宋 수도의 방언이고, 邵武方言은 《古今韻會》와 《古今韻會學要》 저자의 고향 방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네 현대중국방언을 《學要》와 비교하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표 2>에서 각 현대중국방언의 음운 상황은 다음의 논저를 참고하였다. 北京方言 → ① 《漢語方言字彙》，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第二版，文字改革出版社，1989. ②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彙集》，陳章太·李行健主編，語文出版社，1996. 開封方言 → ① 張啓煥·陳天福·程儀，《河南方言研究》，河南大學出版社，1993. ② 劉冬冰，〈開封方言記略〉，《方言》第4期，1997. 杭州方言 → ① 遠藤光曉，〈杭州方言의 音韻體系〉，《均社論叢》16，1989. ② 鮑士杰，《杭州方言詞典》，江蘇教育出版社，1998. 邵武方言 → ① 羅杰瑞，〈邵武方言의 歸屬〉，《方言》第2期，1987. ② 陳章太·李如龍，〈邵武市內的方言〉，《閩語研究》，語文出版社，1991.

〈표 2〉 《舉要》 陽聲韻의 음운적 특징과 현대방언과의 계승 관계²⁴⁾

	北京方言	開封方言	杭州方言	邵武方言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⑥	○	○	○	△~×
⑦	○	○~△	○	△~×
⑧	○	○	○~△	○~△
⑨	△	△	△	△

〈표 2〉에 제시된 ①~⑨ 각 항목에서 《舉要》 陽聲韻의 음운적 특징과 네 현대방언과의 계승 관계를 분석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②: 본고에서 재구한 《舉要》 陽聲韻 韻母의 수는 26~28개이며, 음절구조와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일곱 부류로 나누었다.²⁵⁾ 陽聲韻 韻母의 수는 北京方言과 開封方言 모두 16개이며, 두 방언의 전체적인 구성과 목록도 기본적으로 일치한다.²⁶⁾ 《舉要》에 존재하는 -m 韻尾가 두 방언에

24) 〈표 2〉에서 제시한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 → 해당 음운 특징이 완전히 일치하며,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해당 음운 특징이 대체적으로 일치하며,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비교적 높음. △ → 해당 음운 특징의 일치성은 비교적 낮지만,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있음. × → 해당 음운 특징이 유사하지 않으며,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없음. 또한 ‘△~×’는 ‘△’와 ‘×’의 중간 단계, ‘○~△’는 ‘○’와 ‘△’의 중간 단계임을 나타낸다.

25) 본고에서 재구한 《舉要》의 陽聲韻 韻母 목록은 다음과 같다. am, iam, iam, iam / an, uan, uan, ian, ien, iuan, iuen / əm, iəm / ən, uən, rən, iən, iuən / aŋ, ɔŋ, uaŋ, iaŋ / əŋ, uəŋ, iəŋ, iuəŋ / uŋ, iuŋ. 3等韻과 4等韻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으면 26개이고 인정하면 28개이다.

26) 위에서 제시된 7 부류의 《거요》 陽聲韻 韻母 배열 순서에 맞추어 北京方言 陽聲韻 韻母의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陳章太·李行健主編 1996). an, uan, ian, yan / ən, uən, in, yn / aŋ, uaŋ, iaŋ / əŋ, uəŋ, iŋ / uŋ, yŋ. 《漢

서 -n 韻尾로 합류하였기 때문에 두 방언은 韻母의 수에서 《學要》와 차이가 크다. 韻尾 이외에 두 방언과 《學要》 陽聲韻 체계의 전체적인 구성은 유사하지만, 韻母의 목록과 각 韻母에 소속된 글자는 《學要》와 일부 차이가 있다. 杭州方言 陽聲韻 韻母의 수도 16~17개이지만 구성과 목록에서 北京方言, 開封方言과 차이가 크며, 《學要》와 비교할 때도 차이가 크지만 계승 관계를 설정할 수는 있다.²⁷⁾ 邵武方言에서 陽聲韻 韻母의 수는 19~20개로 다른 방언에 비하여 많은 편이며, 陽聲韻 체계의 구성이나 각 韻母에 속한 글자들은 《學要》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계승 관계를 설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²⁸⁾ 陰聲韻과 入聲韻까지 포함하여 韻母 체계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네 현대방언 모두 《學要》의 韻母 체계와 일치도가 높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의 과정을 고려하면 《學要》와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은 네 방언 모두 가지고 있다.

③: 결론을 내리기에 명확한 자료적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편찬 시기와 陰聲韻과의 체계성을 고려할 때, 《學要》에서는 陰聲韻과 마찬가지로 陽聲韻에서도 ‘y’ 모음과 撮口呼가 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 北京方言과 開封方言에서는 ‘y’ 모음과 撮口呼가 존재하고 있는데, 開封方言에서는 北京方言과 달리 ‘y’ 모음이 ‘ts, tsʰ, s’ 聲母와도 결합할 수 있다.²⁹⁾ 杭

《語方音字彙》에는 이 목록 중 ‘ian, yn’이 각각 ‘ien, iun’으로 제시되어 있다. 開封方言 陽聲韻 韻母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劉冬冰 1997). an, uan, ian, yan / ən, uən, in, yn / aŋ, uaŋ, iaŋ / əŋ, uəŋ, iŋ / oŋ, yŋ. 張啓煥·陳天福·程儀(1993)에는 이 목록 중 ‘ian, yan, on’이 각각 ‘ien, yen, un’으로 제시되어 있다.

27) 杭州方言 陽聲韻 韻母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鮑士杰 1998). ẽ, uõ, iẽ, uõ, yõ / en, un, in, ɥen, yn / aŋ, uaŋ, iaŋ, ɥaŋ / oŋ, ioŋ. 이외에 성절음 ‘ŋ, ɲ’도 존재한다. 遠藤光曉(1989)에서 제시한 목록은 다음과 같아서 다소 차이가 있다. æ, uæ, uõ, iẽ, uõ, yõ / eŋ, u^oŋ, Iŋ, ɥ^oŋ, y^oŋ / Aŋ, uAŋ, iAŋ, ɥAŋ / o^uŋ, ioŋ.

28) 邵武方言 陽聲韻 韻母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陳章太·李如龍 1991). an, on, uan, uon, in, yn / en, ən, uən, ien, yen / aŋ, uaŋ, iaŋ / oŋ, uoŋ, ioŋ / uŋ, iuŋ. 이외에 성절음 ‘ŋ’도 존재한다. 羅杰瑞(1987)에서 제시한 목록에는 ‘yan’이 더 있고, ‘yn’이 ‘yin’으로 되어 있다.

州方言에도 撮口呼가 존재하는데, ‘y’ 모음과 함께 ‘ts, tsʰ, dz, s, z’ 등의 聲母와 결합하는 원순의 실침모음 ‘ɥ’도 존재한다. 邵武方言에도 ‘y’ 모음과 撮口呼가 존재하고 있는데, 陽聲韻의 撮口呼 韻母 ‘-yn, -yen’은 ‘k, kʰ’ 聲母와만 결합할 수 있다.³⁰⁾ 《舉要》에서 변화한 양상을 살펴볼 때 北京方言, 開封方言과의 계승 관계가 좀 더 명확하지만 네 현대방언 모두 《舉要》와 계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④: 《舉要》에서는 干·筭·盱, 公·孔·貢, 捩·肯·亘, 甘·感·紺 등의 陽聲韻 字母韻에서 中古의 1等 글자와 2等 글자 사이의 구별이 사라졌다. 네 방언에서는 《舉要》의 해당 字母韻들과 관련된 각 방언에서의 韻母에 1等 글자와 2等 글자가 모두 속해 있다. 예를 들어 北京方言과 開封方言에서 ‘-an, -uan’ 등의 韻母에는 1等 글자와 2等 글자가 모두 속해 있으며, 韻母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다른 방언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네 방언에서는 聲母가 무엇인가에 따라 1等韻 및 2等韻과의 결합 양상에 차이를 보이고 있고, 관련된 韻母의 목록과 소속된 글자들도 《舉要》와 방언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

⑤: 《舉要》에서는 箝·檢·劔 등의 陽聲韻 字母韻에서 中古의 3等 글자와 4等 글자의 구별이 사라졌다. 네 현대방언의 陽聲韻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韻母에서 中古의 3等 글자와 4等 글자가 모두 속해 있다. 각 방언에서는 일부 韻母가 中古 3等 글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3等 글자와 4等 글자의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⑥: 《舉要》에서는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의 細音化가 나타났는데, 실제 구개음화로 이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 北京方言, 開封方言, 杭州方言에서 陽聲韻의 中古 開口 2等 牙喉音 글자는 細音化가 되면서 구개음화도 발생하였다. 반면 邵武方言에서는 일부 관련 韻母에서

29) 劉冬冰, 앞의 논문, 1997, 272쪽 참고.

30) 陳章太·李如龍, 앞의 책, 1991, 357쪽 참고.

細音化가 일어난 경우가 있으나 洪音 글자인 경우가 많고 구개음화도 발생하지 않았다. 邵武方言에 존재하는 경구개음 聲母 ‘tɕ, tɕh, ɕ’는 中古의 牙喉音 聲母가 아닌 知組와 章組 聲母에서 온 것이다.

⑦: 《學要》에서는 輕唇音 글자의 洪音化가 나타나서 일부 輕唇音 글자들만 陰聲韻에서 羈·己·寄 등의 細音 字母韻에 속해 있다. 陽聲韻에서는 輕唇音이 속해 있는 細音 字母韻을 찾기 어렵다. 北京方言에서 輕唇音은 開口呼와 合口呼의 洪音과 결합하고, ‘i, y’와는 결합하지 못한다. 開封方言, 杭州方言, 邵武方言에서는 輕唇音 글자들이 細音과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開封方言에서는 주로 中古 蟹攝·止攝의 合口 3等 非組에 속했던 글자들에서 聲母 ‘f’가 ‘i’ 韻母와 결합할 수 있고, 細音의 陽聲韻 韻母 중에서는 ‘-in’이 ‘f’ 聲母와 결합할 수 있다.³¹⁾ 杭州方言에서는 ‘非, 匪, 肺, 肥, 味’ 등의 글자에서 聲母 ‘f, v’가 ‘i’ 韻母와 결합하고 있는데, 陽聲韻에서는 ‘f, v’가 ‘i’와 결합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³²⁾ 邵武方言에서는 ‘-in, -ien, -ian’ 등의 細音 陽聲韻 韻母가 ‘f, v’와 결합할 수 있다.³³⁾ 北京方言은 輕唇音 글자가 洪音化한 최종 단계를 반영하여 《學要》에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준다. 開封方言에서도 輕唇音이 細音의 陽聲韻 韻母와 결합하는 예를 찾기 어려우나, ‘-in’ 韻母의 경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北京方言처럼 완전히 결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杭州方言에서는 輕唇音이 細音의 陰聲韻 韻母 중 ‘i’와만 결합할 수 있고, 細音의 陽聲韻 韻母와 결합하는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學要》의 양상과 유사하다. 邵武方言은 輕唇音이 결합할 수 있는 細音 陽聲韻 韻母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에서 《學要》의 양상과 차이가 크고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31) 劉冬冰, 앞의 논문, 1997, 276-278쪽 참고. 다만 張啓煥·陳天福·程儀, 앞의 책, 1993, 88쪽에서는 ‘明, 命’의 聲母를 ‘m’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두 연구는 저 사이에 차이가 있다.

32) 鮑士杰, 앞의 책, 1998, 9-15쪽 참고.

33) 陳章太·李如龍, 앞의 책, 1991, 352쪽 참고.

⑧: 《舉要》 陽聲韻 체계에서는 ‘-m, -n, -ŋ’ 세 鼻音 韻尾를 유지하고 있다. 네 현대방언의 陽聲韻에서는 모두 ‘-m’ 韻尾가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 양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北京方言과 開封方言에서는 -m과 -n 韻尾가 합류하여 《舉要》에서 변화가 자연스럽게 진전된 모습을 보여 주고, 杭州方言에서는 ‘-n, -ŋ’ 두 鼻音 韻尾만 존재하지만 주모음이 비음화된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邵武方言 역시 ‘-n, -ŋ’ 두 鼻音 韻尾만 존재하지만 해당 韻母의 목록이 《舉要》와는 차이가 크다.

⑨: 《舉要》 陽聲韻에서는 陰聲韻보다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箝·檢·劍, 兼·歉·歉 등의 字母韻에서 重紐 현상이 두 개의 다른 字母韻으로 표현되어 牙喉音 重紐 3等과 4等 글자의 구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中古 韻書나 韻圖에서는 重紐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현대중국방언에서는 기본적으로 重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현대방언 중에서도 北京方言의 止攝 唇音에서 重紐 구별의 흔적을 볼 수 있거나 閩方言에 重紐의 대립이 일부 남아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³⁴⁾ 《舉要》에 반영된 重紐 현상은 中古 시기 존재한 重紐가 단계적으로 소실되어 가는 과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重紐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네 현대방언과 차이가 있지만, 中古에서 현대로 오는 과정에서 重紐 현상이 각 방언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방언과의 계승 관계는 설정할 수 있다.

《舉要》의 음운적 특징을 현대중국방언의 양상과 비교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南宋 말기와 元代 초기에 존재한 특정 방언의 당시 음운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방언과의 계승 관계를 따져 보는 것은 《舉要》 陽聲韻 체계의 방언적인 배경을 살필 유용한 방법이다.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현대중국방언들과의 이러한 계승 관계 분석을 통해 《舉要》의 陽聲韻이 반영하는 언어의 성격에 대하여 몇 가지 사실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舉要》의 陽聲韻은 南宋 말기와 元代 초기에 당

34) 竺家寧, 〈試論重紐的語音〉, 《中國語文》 第4期, 1995, 298쪽 참고.

시 정치적인 중심이었던 북방과 남방 주요 지역의 방언에 나타나는 음운적 특징을 어떤 특정 지역의 방언에 편중되지 않게 두루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특정한 현대중국방언에 한정하여 명확한 계승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둘째, 南宋의 수도 臨安(현재의 杭州)은 《舉要》의 저본인 《古今韻會》의 저자 黃公紹가 주로 활동한 지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聲母 체계와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을 포함하는 韻母 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舉要》와 현대 杭州方言의 계승 관계를 수립하는 데 무리가 없다.³⁵⁾ 아울러 핵심적인 음운 항목인 全濁音과 入聲韻尾에서 《舉要》와 杭州方言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며 계승 관계의 가능성도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黃公紹와 《舉要》의 저자 熊忠의 고향이자 이들이 주로 활동한 또 다른 지역인 邵武의 방언이 다른 세 방언에 비하여 《舉要》와 계승 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도 역시 《舉要》가 특정 방언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공통어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舉要》가 반영하는 언어는 어떤 특정한 방언이 아닌 당시의 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통용되던 공통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저자들이 주로 활동하던 南宋 시기의 수도 臨安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통용되던 공통어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南宋의 수도 臨安에서는 北宋 정권이 몰락한 후 中原 지역으로부터 대규모의 이주민이 유입된 결과로 인구가 폭증하였고, 北方人의 인구 비율이 높아져 인구 구성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 지역에는 북방(中原)과 남방 언어의 특징이 융합된 형태의 공통어가 통용되었다.³⁶⁾ 《舉要》가 南宋 수도에서 통용되던 이러한 성격의 공통어를 반영한다고 본다면 《舉要》 陽聲韻과 남방 및 북방의 관련 주요 지역 현대방언 사이에

35) 《古今韻會》와 《舉要》의 저자와 관련된 기록은 花登正宏, 앞의 책, 1997, 49-51쪽 참고.

36) 林正秋, 〈南宋都城臨安人口數考索〉, 《杭州大學學報》 1-2, 1979 참고. 游汝杰, 《漢語方言學導論(修訂本)》, 上海教育出版社, 2000, 99-100쪽 참고.

모두 계승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舉要》 편찬 당시 북방과 남방의 공통어는 그 언어적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추정이 가능하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舉要》의 陽聲韻 체계를 재구하고 그 음운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陽聲韻 字母韻의 체계와 관계를 재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삼았고, 《舉要》가 中古音에서 近代音으로 오는 과도 단계를 반영하는 점을 고려하여 《廣韻》, 《中原音韻》, 현대표준중국어 및 현대중국어방언의 음운 상황을 《舉要》와 비교하고 그 변화의 양상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였다. 또한 재구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四聲通解》에 제시된 韻會音 표기를 가능한 참고하였으며, 《蒙古字韻》에 나타난 파스파 글자 표기는 재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에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四聲通解》에 제시된 蒙韻音 표기를 통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재구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舉要》 陽聲韻 각 字母韻의 재구음을 제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陽聲韻 체계에서 나타난 韻尾 ‘-m, -n, -ŋ’의 구분, 撮口呼 ‘y-’의 미출현, 開口 2等 牙喉音 글자의 細音化, 輕唇音 글자의 洪音化, 일부 字母韻에서 나타나는 重紐 현상의 잔존 등의 음운변화 현상을 논의하였다.

《舉要》 陽聲韻에서 나타난 음운적 특징을 관련된 현대중국방언들과 비교 분석하여 《舉要》의 陽聲韻은 南宋 말기와 元代 초기에 정치적 중심이었던 북방과 남방 주요 지역 방언의 음운적 특징을 두루 가지고 있다

는 점을 추정하였다. 또한 특정한 현대중국방언과 《學要》 사이에 명확한 계승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상황은 《學要》의 陽聲韻이 中原 지역에서의 대규모 이주로 인해 남북 언어의 혼합이 이루어졌던 南宋 수도의 공통어를 반영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곡효운, <『四聲通解』에 인용된 문헌에 대한 연구>, 《中國言語研究》 제 97집, 2021.
- 權赫垓, <《古今韻會學要》의 음운 체계 연구—《四聲通解》의 韻會音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愼鏞權, <《古今韻會學要》, 《蒙古字韻》과 《東國正韻》>, 《알타이학보》 제13호, 2003.
- 愼鏞權, <朝鮮 漢學書의 중국어음 중성 표기에 반영된 음운변화>, 《中國語文學》 제83집, 2020.
- 신용권, <「고금운회거요」 음성운 연구>, 《언어학》 제89호, 2021.
- 郭錫垓,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
- 羅杰瑞, <邵武方言的歸屬>, 《方言》 第2期, 1987.
- 寧忌浮, 《古今韻會學要及相關韻書》, 中華書局, 1997.
- 唐作藩, 《音韻學教程》, 北京大學出版社, 1991.
- 董同龢, 《漢語音韻學》, 1998(十五版), 文史哲出版社, 1968.
- 愼鏞權, <《古今韻會學要》研究>, 南京大學 博士學位論文, 2002.
- 安奇燮, <從朝漢對音考察-m韻尾的轉化>, 《語言研究》 第2期, 1995.
- 楊耐思, 《近代漢語音論(增補本)》, 商務印書館, 2012.
- 王力, 《漢語史稿(修訂本)》, 中華書局, 1980.

- 王力, 《漢語語音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5.
- 劉冬冰, 《開封方言記略》, 《方言》 第4期, 1997.
- 游汝杰, 《漢語方言學導論(修訂本)》, 上海教育出版社, 2000.
- 陸志韋, 《釋中原音韻》, 《燕京學報》 第31期, 1946.
- 李珍華·周長楫, 《漢字古今音表(修訂本)》, 中華書局, 1999.
- 林正秋, 《南宋都城臨安人口數考索》, 《杭州大學學報》 1-2, 1979.
- 張啓煥·陳天福·程儀, 《河南方言研究》, 河南大學出版社, 1993.
- 陳章太·李如龍, 《閩語研究》, 語文出版社, 1991.
- 竺家寧, 《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 臺灣學生書局, 1986.
- 竺家寧, 《近代音論集》, 臺灣學生書局, 1994.
- 竺家寧, 《試論重紐的語音》, 《中國語文》 第4期, 1995.
- 何九盈, 《中國古代語言學史》, 2000(第2版), 廣東教育出版社, 1995.
- 遠藤光曉, 《杭州方言の音韻体系》, 《均社論叢》 16号, 1989.
- 花登正宏, 《古今韻會舉要研究—中國近世音韻史の一側面—》, 汲古書院, 1997.
- Cheng Tsai-Fa, *Ancient Chinese and Early Mandarin*,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monograph series No.2. (1985).
- 《廣韻》(1008), 《新校互註宋本廣韻》, 余廼永校注, 上海辭書出版社, 2000.
- 《古今韻會舉要》(1297), 《古今韻會舉要》, 明刊本, 甯忌浮整理, 中華書局, 2000.
- 《蒙古字韻》(1308), 《蒙古字韻校本》, 照那斯圖·楊耐思編著, 民族出版社, 1987.
- 《中原音韻》(1324), 鐵琴銅劍樓藏元刊本.
- 《洪武正韻譯訓》(1455), 高麗大學校出版部, 1974.
- 《翻譯老乞大》(1515년경), 卷上下, 亞細亞文化社, 1980.
- 《翻譯朴通事》(1515년경), 卷上, 慶北大學校大學院, 1959.
- 《四聲通解》(1517), 大提閣, 1985.
- 《漢語方音字彙》,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 第二版, 文字

改革出版社, 1989.

《普通話基礎方言基本詞彙集》，陳章太·李行健主編，語文出版社，1996.

《杭州方言詞典》，鮑士杰編纂，江蘇教育出版社，1998.

《現代漢語詞典(增補本)》，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商務印書館，2002.

<Abstract>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several problems in the Yangsheng rhyme of *Juyao* (full name *Gujinyunhuijuyao* (古今韻會舉要)). *Juyao* designed the Zimuyun(字母韻) system is an important material for demonstrating the phonetic change in the history of the commonly used Chinese language from Ancient Chinese to Modern Chinese. This paper focuses on studying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 will examine the availability of materials used in reconstructing the Yangsheng rhyme system of *Juyao*. Secondly, I will try to reconstruct the Yangsheng rhyme of *Juyao* on the basis of several materials. Finally, I will analyze the Zimuyun system of *Juyao* and discuss several problems concerning the Yangsheng rhyme. I will also study Chinese nasal final syllable change and the phonological system's basis of *Juyao*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Juyao* and *Guangyun* (廣韻), *Zhongyuaninyinun* (中原音韻), Contemporary Chinese dialects.

Key Words : 古今韻會舉要(*Gujinyunhuijuyao*), 字母韻(Zimuyun), 陽聲韻 (Yangsheng rhyme), 음 변화(phonetic change), 비음 운미 음절(nasal final syllable)